

2004

한국건축문화大賞

Korean

Architecture Award

수상작 전시회

- ▶ 기간 : 11월 24일(수)~11월 30일(화)
- ▶ 장소 :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신관

시상식

- ▶ 일시 : 11월 24일(수) 15:00
-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컨벤션홀

주최 / 건설교통부, 대한건축사협회, (주)서울경제신문
주관 / 대한건축사협회
후원 / 대한주택공사,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보증(주)

한국건축문화대상 시행위원회

특 집

Special Issue

2004한국건축문화대상

Korean Architecture Awards 2004

영예의 대통령상이 수여되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의 대상이 올해부터 '비주거'와 '주거'로 나뉘어 확대, 시상한다. 그 첫 번째 수혜자로 비주거부문은 김상식 건축사(주, 금성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가 설계하고, (주)금호산업이 시공한 「광주광역시청사」가, 주거부문에는 김종국(주,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건축사가 설계하고, 현대산업개발(주)이 시공한 「아이파크 삼성동」이 국내 준공건축물들을 대상으로 한 2004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영예의 대상(大賞)으로 각각 선정됐다. 또 올해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는 KT여의도사옥 등 6작품이 본상을 차지한 것을 비롯해 우수상 등 모두 22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불이(不二) - Architecture in Nature · Nature in Architecture”를 주제로 공모한 일반 및 신인·학생 대상의 계획건축물부문에서는 박종대, 윤새봄, 김정희(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대학원 건축의장연구실)씨가 공동 출품한「Plankton House」가 금상을 차지한 것을 비롯해 은상 2팀, 동상 3팀 입선 22점 등 모두 28개 팀이 입상했다. 올해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선 준공건축물부문 89점, 계획건축물부문 252점 등 총 341개 작품이 응모했다.

비주거 부문의 대상을 차지한 광주광역시청사는 “관(官)건물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하나의 문화 건물로 탈바꿈하려는 시도가 특히 돋보이는 작품으로 시공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도가 우수한 작품”이란 평을 받았다. 또한 주거 부문의 아이파크 삼성동은 “아파트이면서도 주상복합의 이미지를 구현시키면서 판상형 형태에서 벗어나 탑상형 배치에 의한 낮은 건폐율 적용으로 친환경적인 단지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시공이 매우 우수한 작품”이란 평을 받았다.

한편 올해부터 우리나라 건축문화발전을 위해 기여한 건축인을 발굴해 시상하는 ‘올해의 건축인상’을 제정, 그 첫 번째 수상자로 김석철 건축사(아카반건축도시연구원 건축사사무소)와 이창남 건축사(센구조 건축사사무소)가 선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11월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되어 대상의 비주거부문 수상작의 설계자인 김상식 건축사에게 대통령상 그리고 시공자인 (주)금호산업에게는 건설교통부장관상, 건축주인 광주광역시청에게는 국무총리상이 수여됐다. 또한 주거부문 수상작의 시공자인 현대산업개발(주)에게 대통령상 그리고 설계자인 김종국 건축사에게는 국무총리상, 건축주인 현대산업개발(주)에게는 건설교통부장관상이 수여됐다. 또 KT 여의도 빌딩 등 본상 6개 작품의 설계자 및 시공자에게는 건설교통부장관상 등 정부포상이, 준공건축물부문 우수상 입상자 전원에게는 각각 대한건축사협회장상, 서울경제신문사장상이 수여됐다.

계획건축물부문의 금상 수상자에게는 건설교통부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되었으며, 은상과 동상, 입선작은 대한건축사협회장상과 상금이 각각 수여됐다. 아울러 동상이상 수상자 중 영어 인터뷰심사를 거쳐 2명을 선발, ARCASIA 학생잼버리대회 파견 특전이 주어진다. 건설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주)서울경제신문이 공동주최하고 대한주택공사 등 건설관련 5개 단체가 후원하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올해로 13회째 개최되고 있다. 더욱이 올해에는 대통령상을 두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는 등 그 폭이 넓어져 수상자에게 더 큰 영예를 주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동안 기성 건축인들의 창작의욕 고취는 물론 건축자변을 크게 확대하였다는 평가 아울러 우리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해 한국건축문화대상은 명실공히 국내 건축인은 물론 일반 국민의 대표 건축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편집자 주>

상의 제정 배경 및 목적

제정배경

-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건축은 문화」라는 대명제 아래 '건축의 대중화'를 추구함으로써 우수한 건축물이 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우리 건축의 정통성과 현대성이 구현된 역작을 발굴, 이 시대 건축문화의 표상으로 삼아 건축 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기본취지로 지난 92년 건설부와 (주)서울경제신문이 공동 제정함.
- 제3회('94) 행사부터는 지난 1971년부터 대한건축사협회가 단독 개최해오던 「한국건축전」과 통합을 이뤄 민·관·언론이 공동 시행주체가 되는 건축 분야의 대표적 전시·시상행사로 발전.

목적

-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 창달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우리 건축물의 인간중시, 환경과의 조화 구현
- 건축계의 유능한 후진발굴 및 창작의욕 고취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지난 96년 제5회 때부터 본상 이상 수상자중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해 대통령상 등 정부포상을 수여함으로써 명실공히 국내 건축상 제도 중 가장 권위 있는 행사로 발돋움함.

역대 주요 수상작(준공건축물부문)

회차	대상	본상	우수상
제1회 (1992년)	한샘시화 공장	삼성종합연구소 청조관 호텔 현대, 분당시범아파트단지 현대아파트, 연남동주택	-
제2회 (1993년)	헌법재판소	국립부여박물관, 이화여대 공관 학동수출당, 부산서대신동주택	-
제3회 (1994년)	민정학원	아주대병원, 예담교회 SBS등촌동 스튜디오, 포이탑빌라	엑스포아파트 전쟁기념관
제4회 (1995년)	포스코센터	경희분당차병원, 쌍용주타증권 사옥 충천휴게소, 핼파스 삼성국제경영연구소	수원선경도서관 토월대동아파트 삼성동 현대빌라
제5회 (1996년)	대법원 청사	분당 주공아파트, 태평양파크빌라 신내지구 9단지 아파트 수원외곽음악관, 진로커머스 공장 용문청사년수련원	-
제6회 (1997년)	LG화학 기술연구소	삼성동주택, 분당 집합주거 웨스트조선호텔 빌라 코오롱타워, 블루힐백화점 국민생명미래연구소	-
제7회 (1998년)	울산현대예술관	고려포리머 사옥, 김육길기념관 오크밸리 리조트 씨네플라스, 이태원 다가구주택 백남학술정보관	-
제8회 (1999년)	(해당작 없음)	양산 컨트리클럽하우스 두산타워, 구산타워 국민의료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민대학교 국제교육관 부산 당감지구 주공아파트, 임거당	-
제9회 (2000년)	교원그룹연구소 - 게스트하우스	성동구노인종합복지관 멜콤시터, 동아미디어센터 미제루, 영동군보건소 서미갤러리	-
제10회 (2001년)	의재미술관	가나안 교회 천주교인보성체수도회 전주성당 용인 삼성생명 노블카운티 대구달성 명곡 주공아파트 은평구립도서관 서울예술대학 안산캠퍼스	-
제11회 (2002년)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수원시연화장 코리아디자인센터 부산아시아드 경기대회 선수·기자촌 아파트 대한주택공사 기흥상갈 금화마을 원당성당, 충북대학교 건원관	-
제12회 (2003년)	시몬느 사옥	분당 C-11-4-12 광명철산지구 주공아파트 춘천두미르 군인아파트 동부금융센터, 매스메세이지 포스코역사관	-

역대 응모작 및 수상작 수

* () 숫자는 입상자수

부문	년도	1회('92)	2회('93)	3회('94)	4회('95)	5회('96)	6회('97)
준공건축물부문		99점(18)	40점(18)	81점(28)	76점(24)	75점(33)	63점(22)
계획건축물부문	신인부문	-	-	15점(10)	16점(9)	236점(45)	304점(36)
	학생부문	-	-	127점(29)	179점(38)		
부문	년도	7회('98)	8회('99)	9회('00)	10회('01)	11회('02)	12회('03)
준공건축물부문		72점(22)	52점(25)	62점(26)	78점(24)	67점(20)	90점(21)
계획건축물부문		322점(30)	-	26점(13)	123점(33)	128점(25)	263점(28)

준공부분 | 대상



광주광역시청사(비주거부문)

준공부분 | 본상



아이파크 삼성동(주거부문)



KT 여의도 빌딩



한성대학교 도서관

행사일정

- 작품공모공고 : 6. 1~8. 31
- 접수 : 9. 1~9. 2
- 심사 : 9. 9(사진첩심사)
 9.18~19(지방 현장심사)
 10.8~10.10(수도권 현장심사 및 최종심사)
- 시상식 : 11. 24. 15:00
 장소: 세종문화회관 컨벤션홀
- 수상작전시 : 11. 24~11.30
 장소: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신관 전시실

주요 공모요강

- 가. 응모작품 및 자격
 - 응모작품 : 2002년 9월 1일부터 2004년 8월 31일 사이에 국내에 준공된 주거용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또는 비주거용건축물(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등)
 - 응모자격 : 응모작품의 설계자·시공자·건축주로서 출품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허가서에 명시되어 있는 자
- 나. 주요 출품규정
 - 작품설명서, 건축물사진, 설계도면 등이 수록된 B4 규격의 사진첩 2부
 - 건축물대장 1부
 - 건축허가서 1부
 - 설계자·시공자·건축주 소개서 1부
 - 응모작품이 공동설계 또는 공동시공 작품일 경우 대표 설계자(시공자)를 구분 명시해야

시상내용

상명	시상내용	설 계 자	시 공 자	건 축 주	비 고
대상(2점)	비주거 건축물	대통령상 트로피 해외건축탐방	건설교통부장관상 트로피 해외건축탐방	국무총리상 건축물부차용 명판	
	주거 건축물	국무총리상 트로피 해외건축탐방	대통령상 트로피 해외건축탐방	건설교통부장관상 건축물부차용 명판	
본 상(6점)		건설교통부장관상 트로피 해외건축탐방	건설교통부장관상 트로피 해외건축탐방	건설교통부장관상 건축물부차용 명판	주거건축물 3점 비주거건축물 3점
우수상(다수)		대한건축사협회장상	대한건축사협회장상	서울경제신문사장상	

- 하며, 외국사 참여 작품인 경우 관련 사실을 필히 기재해야 함
- 수상자가 공동 출품일 경우 대표 설계자(시공자) 1인에 대해 시상함
- 1차 사진첩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해 2차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패널 제출

심사

- 가. 심사방법
 - 1차심사 (사진첩심사) : 현장심사 대상작 선정
 - 2차심사 (현장심사) : 입상작(대상·본상·우수상)선정
- 나. 심사위원
 - 정무웅 / 단국대학교 교수(심사위원장)
 - 김선양 / (주)한중종합건축사사무소
 - 김희서 / 단국대학교 교수
 - 박헬렌주현 / 경기대학교 교수
 - 박현일 / 삼성물산 상무
 - 심우갑 / 서울대학교 교수
 - 이영수 / 흥익대학교 교수

수상자 명단(작품명/설계자/시공자/건축주 순)

- 대상
 - 비주거부문 설계자(대통령상), 시공자(건설교통부장관상), 건축주(국무총리상)
 - 광주광역시청사 / 김상식(주. 금성 종합건축사사무소) / 금호산업(주) / 광주광역시청
 - 주거부문 설계자(국무총리상), 시공자(대통령상), 건축주(건설교통부장관상)
 - 아이파크 삼성동 / 김중국(주.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 현대산업개발(주) / 현대산업개발(주)
- 본상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 건설교통부장관상)
 - 비주거부문
 - KT 여의도 빌딩 / 이관표(주. 엠앤디 종합건축사사무소) / 주식회사 동원이앤씨 / 주식회사 케이티
 - 한성대학교 도서관 / 이상림 (주. 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 / 삼성물산(주) / 학교법인 한성학원
 - 현대해상화재보험 광화문사옥 / 김정철 (주. 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현대산업개발(주) / 현대해상화재보험(주)



현대해상화재보험 광화문사옥



용인신길 새천년 주거단지



연하당

- 주거부문

- 용인신갈 새천년 주거단지 / 최두호 (주. 토문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두산산업개발(주) / 대한주택공사
- 연하당 / 방철린 (주. 인.토 종합건축사사무소) / 정순화 / 정순화
- 광장 11차 현대홈타운 / 유 건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시상) / 현대건설(주) / 광장11차 현대지역주택조합

■ 우수상 (설계자, 시공자 : 대한건축사협회장 상, 건축주 : 서울경제신문사장상)

- (주)세정서울사옥 / 이영수 (주. 건축환경그룹 건축사사무소) / (주)세정건설 / (주)세정
- 금강휴게소 / 인의식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연미건축) / 케이티씨건설(주) / (주)금강휴게소
- 서울대학교 이공계 멀티미디어 강의동 / 신동재 (주. 다울 건축사사무소) / (주)태광건설 / 서울대학교
- 포항공대 청암 학술정보관 / 심성보 (주. 포스-에이씨 종합감리건축사사무소) / (주)포스코건설 /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 경기테크노파크 / 이영희 (주. 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 / (주)동양고속건설 / (재)경기테크노파크
- 순천 어린이도서관 / 김병옥 (주. 기용건축 건축사사무소) / (주)유태ENG / (재)책임는 사회문화재단
- 국립 남도 국악원 / 이종찬 (주. 원양 건축사사무소) / 현대산업개발(주) / 문화관광부 국립국악원
- 충청대학 ART HALL / 유 건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시상) / (주)신라종합건설 / 학교법

인 충청학원

- 인사동 덕원갤러리 / 권문성 (주. 건축사사무소 이뜰리에칩설) / 유명건설(주) / (주)덕원문예개발
- SBS 신사옥 / 최관영 (주. 일건씨앤씨 건축사사무소) / (주)태영 / (주)SBS
- 논산 뽕밭 요양원·유지원 / 강병국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우건축) / (주)오지아이건설 / 재단법인 천주교 뽕밭수도원 유지재단
- 주한이란대사관저 / 한현철 (주. 데이비드한 건축사사무소) / LG건설주식회사 / 주한이란대사관
- 조린현 / 김호만(이로재김호만 건축사사무소) / 강태진 / 강태진
- 우면동 스튜디오 / 임재용 (건축사사무소 OCA) / 조창환 / 조창환

심사 총평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올해로 벌써 13회째를 맞는 명실공히 건축부문에 있어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제도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한국건축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불어 닥친 건축경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작년과 같이 많은 작품들이 출품되었다. 작품 수는 비주거 부문 73작품 그리고 주거부문 16작품 등 총 89작품이 접수되었다. 심사방법은 예년과 같이 비주거와 주거부문을 이원화하여 시상하되 비주거와 주거부문의 작품 수를 고려하여 우선 우수상 이상의 작품 가능성이 있는 작품을 선정하고, 모든 작품을 현장 답사하여 그 중 최종적으로 입상작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심사기준은 작품성과 창의성

및 친환경적 구현과 공공성 그리고 건축관계자들의 열의와 시대적 소명감 등을 고려하여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 심사기준과 방법을 정하였다. 그 결과 예비심사를 거쳐 주거부문 9작품, 비주거부문 19작품 등 총 28개 작품을 현장 심사대상작으로 결정하였다. 다만 예년에 비해 주거부문에 있어 출품작이 적은 관계로 숫자적으로 비주거부문에 비해 심사 대상작이 적었음을 밝힌다. 사전접에 의한 예비심사였기 때문에 선정 대상 작품 모두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하기로 하고 총 5일간에 걸친 현장 방문의 대장정을 시작하였다. 현장 선정 대상 작품 모두 매우 우수한 작품들이고,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많은 고충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에 의해서만 시상 작품을 분류하여 선정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심사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방문과 토론 결과 일부 작품은 사진접과 현장 방문과의 시각 차이에 의해 입상작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비주거부문 대상 1점과 주거부문 대상 1점 그리고 비주거와 주거부문 본상 각 3점 그리고 우수상 14점 등 총 22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설계자에게 대통령상을 수여하는 비주거 부문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광주시청사는 8년간이라는 긴 시간 끝에 완공된 작품으로 ‘관(官)’ 건물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하나의 문화 건물로 탈바꿈하려는 시도가 특히 돋보이는 작품으로 시공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도가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시공자에게 대통령상을 수여하는 주거부문의 대상인 아이파크 삼성동은 아파트이면서도 주상복합의 이미지를 구현시키면서 판상형 형태에서 벗어나 탑상형 배치에 의한 낮은 건폐율의 적용으로 매우 친환경적인 단지를 이루고

준공부분 | 우수상



광장 11차 현대홈타운



(주)세정서울사옥



금강휴게소



서울대학교 이공계 멀티미디어 강의동

있는, 특히 시공이 매우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우수상 이상의 작품들이 모든 지역에 걸쳐 고루 분포되어 있어 다른 해보다 훨씬 답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해의 가장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는 심사위원이라는 강한 자부심과 5일만에 걸친 강행군으로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한국건축문화대상이 해가 갈수록 더욱 발전하고 높은 수준의 작품들이 출품되어 한국건축계의 밝은 미래가 도래되기를 기대한다.

• 광주광역시청사 : 출품작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건물 중에 하나인 광주광역시청사는 현상설계 이후 2년간의 설계기간 그리고 5년이라는 긴 시간을 두고 완공된 건물로 ‘관(官)’ 건물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강력한 축선에 의한 권위적인 시각은 잔존하지만 이러한 시각을 타파하려는 건축사의 의지가 충분히 보인다. 전체 매스는 행정 동, 진입 홀, 의회 동으로 형태와 기능을 분할하고, 여기에 입면 개구부와 계단 등의 조형적 요소를 통해 미시적 분위기를 해소시키고 있다. 형태적으로 새 시대를 향해하는 선박을 연상시키는 좌측의 경사진 형태의 5층의 의회 동과 18층의 행정 동이 서로 다른 몸짓을 하면서도 기능에 따른 수평적 확장을 통해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매스를 벗어나려고 한 흔적이 보인다. 이러한 흔적은 특히 내부공간에서 보이는데, 4층 높이의 약 18m에 달하는 오픈 된 홀은 면과 면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공간들이 서로 다층적으로 중첩되면서 외부의 수평적 균질감을 해소시키면서 자유로운 공간적 파노라마를 연출하고 있다. 면을 통해 공간을 담고 싶었다는 건

축가의 말처럼 흰색 면들은 서로가 서로를 규정하면서 공간을 분할하고 팽창시킨다. 8년 전의 설계임에도 불구하고 ‘관’ 건물이라기보다 하나의 문화건물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는 시공성도 매우 우수한 건물이다.

• 아이파크 삼성동 : 상업지역에 지어진 주상복합건물과 유사한 건물이나 실제적으로는 일반주거지역에 세워진 순수아파트 건물로서 기존 일자형의 획일적 아파트 배치에서 탈피하여 주상복합의 편리성과 아파트 주거성의 장점들을 결합시킨 새로운 주거 형태를 제시하고 있는 건물이다. 물론 우리나라 최고 가격대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서민아파트와는 다르게 많은 새로운 시도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지울 수는 없는 건물이다.

현상설계 당시 건폐율 9%대의 배치계획으로 주동수를 줄이고 고층화하면서 나머지 공간들을 모두 녹지로 계획하여 오픈 스페이스를 제공한 점은 당시 다른 계획안과 차별되는 가장 강력한 개념이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부가 가치의 대명사격인 아파트이기 때문에 건물의 설비시스템 혹은 시공의 질적인 우수함은 물론 국내 최초의 최우수 친환경 건축물로 인증된 건물로 알 수 있듯이 매우 적극적인 친환경 설계를 도입한 점이 돋보인다. 그리고 외지인들에게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고급아파트이기 때문에 과연 대지의 90%인 외부공간이 과연 공공성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물론 관리상의 문제, 거주민들에 대한 보호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각적으로만 개방된 공간이 아닌 좀더 지역주민과 교감된 외부공간의 활용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KT 여의도 빌딩 : 여의도 공원을 마주하고 있는 이 건물은 이미 근 10년 전에 현상설계에서 당선된 작품으로 시간의 흐름이 말해주듯이 IMF 등을 거치면서 초기 안이 많이 수정되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 주요 기능이 여의도 전화국과 한국통신 지원시설 등인 이 건물은 평면기능보다 대지 위치상 건물외관이 더 강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

전경면 빌딩 옆에 위치한 건물은 사실 낮보다는 밤에 더욱 랜드마크적인 건물로 자리 잡고 있다. 장소가 가지는 좋은 조망권으로 인해 15.6m라는 매우 긴 스팬으로 공간 내부의 기둥을 없애고 여의도 공원 쪽으로 확 트인 시야를 확보하고 있다. 고층부에서 보이는 수직의 돌출물은 외관의 주요 재료인 유리외 최상부의 화강석 면을 연결시켜주는 개념으로 사용했다지만 너무 장식적인 선이라는 느낌이 있다. 물론 여의도 공원에서 바라보면 건물에 스케일감을 부여하고 있기는 하다. 내부공간의 마감처리라든지 디테일 처리 등 시공 면에서도 매우 우수한 건축물로 평가된다.

• 한성대학교 도서관 : 캠퍼스입구에 조용히 배치된 도서관은 다가설수록 과감한 공간들을 선보이고 있다. 운동장에서 선큰가든으로 내려가는 동선을 응용, 무대와 운동실 등 수직적으로 프로그램을 배치하였고, 빌딩 전면에서 후면으로 연결되는 옥외통로 역시 캠퍼스의 동선을 고려한 결과이다. 이러한 통로의 개념을 입면까지 응용하여 경사로로 이루어지는 빌딩 전면을 유리로 처리, 투과되는 공간이 건물의 존재를 가볍게 해주며, 도서관 수직 동선의 표현으로 캠퍼스 야경에 활기를 더해준다. 설계에 비하여



포항공대 청암 학습정보관



경기테크노파크



순천 어린이도서관

제한된 예산의 한계가 곳곳에 보이거나 학교건물 설계가 거듭해 온 기능해결과 상징성 부여에 급급한 현실을 발전시키는 좋은 예이다.

• 현대대상 화재보험 광화문 사옥 : 기존건물에 대한 배려와 함께 야심 차고도 세밀한 작업이 이루어진 리노베이션 작업이다. 외관에서는 기존 기업 건축이미지를 탈피하면서도 석재 소재의 연결로 친숙함을 자아내었고, 광화문거리에 빛과 시각적으로 투과되는 로비공간을 부여하였다. 내부에서는 효율적인 설비, 전기 시스템이 꼼꼼한 인테리어와 일체가 되었고, 열린 유리 외관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전망과 암전이 가능한 강당을 소개하였다. Roof Garden과 연결된 공간은 숨겨진 보석처럼 작용할 것이다. 입면처리와 함께 병행된 연구와 해결방법이 보여주는 건축설계작업의 즐거움과 정교하게 이어지는 대리석 판재의 혈관패턴을 같이 논의하는 건축주의 깊은 관심이 공진을 이룬 결과물이라고 생각된다.

• 용인신갈 새천년 주거단지 : 서민용 주공 아파트로 현장 답사 시 주변 환경이 아직 완전히 정리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이 단지에서 건축사의 의도대로 주민들이 공간을 활용하고 만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던 작품이다. 그러나 최근에 지어진 다른 여타 주공아파트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시도가 돋보이는 매우 우수한 주거단지로 평가되었다. 배치계획에서 매우 대규모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단지로 분할 구성하여 마을 속의 마을의 개념이 드러나고 있으며, 기존 지형을 일부 보존하면서 친환경적인 공간을 구성하고 있고,

골프장에 면한 일부 테라스 형 주거의 제안 등 서민아파트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외부공간간의 여유 있는 구성이 특히 돋보인다. 그리고 곳곳에 분수 혹은 벽천을 두어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고 건물과 건물사이에 2개 층 높이의 보이드 된 연결통로라든지 저층과 고층부분을 재료를 분리하여 확일화 될 수 있는 파사드의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주거단지의 새로운 유형을 제안하고 있다. 서민아파트로서의 공사비의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형이 제시될 수 있었던 점은 앞으로 제시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시공 역시 일반 아파트보다 우수할 정도로 여러 가지 면에서 건축사와 시공사 그리고 발주처 모두 새천년 주거단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모두 협력해서 만들어진 주거단지라고 평가된다.

• 연하당 : 성북동 굽은 길을 따라 가다 보면 계속 이어지는 담들의 행렬 중에 작은 진입마당이 길로 열리며 식재를 보여주는 집이 있다. 아담하게 구성된 진입은 건물의 규모를 잘 숨겨주고 있다. 중정을 통하여 집 곳곳에 햇살이 드는 밝은 집이다. 규모에 비하여 많은 실들이 좁은 느낌이 들었으나 작은 기도실의 스케일이 성공적이었으며, 건축주의 여러 요청과 건축된 고려를 잘 풀어간 작업이다.

• 광장 11차 현대출타운 : 풍치지구로서 고층 아파트로 둘러싸인 부정형 형태의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주택조합 형식으로 개발된 저층 고밀도 아파트 단지를 제안하고 있다. 159세대 모두 33평형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다. 소규모이지만 매우 짜임새 있게 경사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하고 한 마을을 연상시키는 단지계획이 돋보인다. 특히 대부분이 꺼려하는 1층을 작업실 혹은 서재 등 다목적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세대에게 할애한 점이라든가 최상층인 4층 세대에 다락방과 전면 건물의 옥상 테라스 정원으로 할애시킨 점 등은 여느 아파트에서 찾기 힘든 차별화된 개념으로 보인다. 일부 평면에서는 매우 실제 평형보다 크게 느껴질 정도로 새로운 평면 유형을 제안하고 있다. 주민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위하여 단지 중앙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구성하면서 경사지를 따라 매우 자연발생적 마을을 연상시키는 동선과 공간체계가 매우 돋보이는 건물로 평가된다.

• 주한 이란대사관저 : 출품작 중에 매우 이례적인 작품이었던 주한이란 대사관의 대사관저인 이 건물은 매우 폐쇄적이고 주변과 소통이 없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문화적으로 많은 접촉이 없고 이해하기 힘든 문화권 나라, 외국 대사의 주거용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방문한다는 것이 매우 궁금하기도 했다. 작가인 파하드 아마다는 같은 시기에 대사관과 대사관저를 동시에 설계한 특이한 경우다. 작가는 빛에 대한 신화적 해석을 근거로 중정과 아트리움, 차폐와 개방이라는 4개의 요소를 통해 이 두 건물을 디자인하고 있다. 관저의 외관에서 보여지는 노출 콘크리트의 4개 박스의 극단적인 대칭성 그리고 건물 중앙에서 대지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물의 사원인 수 공간, 이러한 것들이 어찌 보면 주거라기보다는 종교건물과도 같은 인상을 준다. 이러한 종교적 이미지는 내부공간에서도 같이 읽혀진다. 외부와 마찬가지로 내부공간은 매우 미



국립 남도 국악원



충청대학 ART HALL



인사동 덕원갤러리



SBS 신사옥

니멀하고, 절제되어 있고, 인테리어 역시 공간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로 마감되어 있다. 주택이지만 일반 주거보다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적인 장소도 겸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부공간을 자세히 읽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는 작품이었다.

• 논산 썬벨 요양원 및 유치원 : 이름에서 읽혀 지듯이 이 건물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요양원)과 교육연구시설(유치원)로 구성된 건물이다. 모두 수녀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 건물을 답사하고 나서 건축사가 얼마나 많이 고생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작품이다. 수녀님들의 희생정신 못지않게 건축사 역시 매우 봉사하는 생각으로 이 건물을 설계했을 것으로 보인다. 약간 경사진 대지 입구 쪽에 유치원을 그리고 중심부에 성당과 종탑이 그리고 후면에 요양원이 배치되어 있다. 이 먼 외지에 매우 구석구석 건축사의 손길이 느껴진다. 특히 요양원 건물은 그 기능이 사회생활의 마지막 장소이고, 이곳에서 죽음을 맞는 장소이기 때문에 외부 매스에서 보이는 절제의 미가 내부공간에서도 읽혀지고 있다. 노출콘크리트로 된 수평적 매스와 그 뒤에서 동판으로 처리된 매스 등 수평과 수직 그리고 면과 선 등이 적절히 균형 있게 구성된 작품이다. 노출콘크리트와 적삼목으로 구성된 요양원 숙소와 매우 간결하면서도 엄숙함을 드러내는 종탑 등 수녀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특수한 건물이기 때문에 매우 폐쇄적이긴 하지만 이런 외지에 절적인 가치가 있는 건물이 하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 경기 테크노파크 : 경기도 안산에 위치하고 있는 이 건물은 주요 기능이 기업의 정보화 촉진 및 경쟁력 강화 그리고 벤처기업의 창업촉진을 추진하기 위한 산학협동의 연구단지 조성계획이다.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와 이웃하고 있는 이 건물은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주변 환경 때문이기도 하지만 건축사의 창의적인 형태미의 도출보다는 증축에 대한 고려, 효율적인 동선 등 기능적인 기준이 우선되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크게 임대 연구소 동, 지원 편의시설 동 그리고 임대공장 및 파이롯 플랜트 동 등 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곡면 처리된 지원 편의시설로 인해 매우 단순로운 형태에 조소적 형태를 가미하고 있으며, 특히 차량 주진입 동선인 해안로에 대해 가로 방향에 따라 길게 늘어 선 곡면이 진입광장으로의 자연스러운 유입을 유도하고 있고, 다른 두개의 건물은 세장한 입면이 흐름의 구심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축사의 의도대로 정원 개념이 적용된 외부공간의 처리는 미흡한 것으로 여겨진다.

• 금강휴게소 : 그냥 스쳐가는 건물로서가 아니라 쉬고 즐기는 건물이 되어버린, 누구나 한번은 들릴 수밖에 없는 건물이 되어 버린 고속도로 휴게소는 이제는 하나의 문화 건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흔치 않게 상하행선을 모두 수용하고 있는 금강휴게소는 주변의 경관만으로도 매우 기억에 남을 만 장소라고 할 수 있다.

금강휴게소는 수려한 산세와 맑은 물이 흐르는 금강 상류 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을 등지고 배치되었던 과거의 건물을 철거하고 과거 건물과는 반대로 새로운 건물은 배면에서 보이는 대지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경관과 교감을 이루고

있고, 자연과의 조화와 보존을 위한 친환경적인 노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특히 목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작가의 의도대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나 편안하고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 언어를 사용했다고 한다. 원목상태 그대로 사용한 가로등과 데크의 기둥들은 자연의 일부로 느껴지도록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다. 외부와 마찬가지로 내부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연을 내부공간으로 관입시키고 있고 경관 조망을 위해 내부의 모든 요소는 단순화 되어 되어 있는 건물이다. 사실 이 장소는 없는 듯한 건물이 더욱 좋은 건물이지 않을까 할 정도로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잘 살린 건물로 평가된다.

• 우면동 스튜디오 : 서초구 우면동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는 이 건물은 화가인 건축주의 주택으로 건축사는 일련의 작품을 통해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선의 유희 혹은 자유로운 형태의 유희라고 할까? 건축사는 이 주택의 주된 개념으로 "틈"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면과 면 사이의 틈으로 인해 주변 환경과 마당 그리고 내부 공간과 마당 등의 틈이 그것이다. 문화시설에서나 가능할 수 있는 직선과 사선의 멋진 어우러짐이 있는 주택이다. 외부에서와 마찬가지로 내부공간에서도 이러한 사선은 모든 실의 천장이 사선의 지붕 형태를 그대로 받아들여 전체 내부공간을 뒤덮고 있다. 노출콘크리트와 징크가 어우러져 있고 재료가 주는 절제의 미도 돋보이는 건물이다. 평범한 모든 공간은 이러한 사선의 에너지가 발휘되어 낯설고 신비스러운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



논산 썬벨 요양원 · 유치원



주한이란대서관저



조린현



우면동 스튜디오

• (주)세정 서울사옥 : '인디안'이라는 의류 브랜드로 알려진 패션전문회사의 사옥인 이 건물은 테헤란로변 포스코센터 사거리에서 대치 사거리로의 오르막길 정상에 35m 삼성로를 두고 서측 면을 정면으로 하는 대지 상황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다. 그저 평범한 주변 가로변의 파사드에서 매우 역동적인 형태 처리로 가로경관을 매우 활기차게 만들고 있는 이 건물은 먼저 외부형태에서 다른 건물과 차별되는 중규모 사무소 건물이다. 외부적으로 활처럼 휘어져 긴장감을 주고 있는, 하늘을 향해 솟구쳐 오르는 듯한 곡선의 H형강에 의해 눈에 띈다. 또한 곡선 처리된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는 1층부터 9층까지 오픈된 atrium 공간으로 내부 공간 역시 압도하고 있다. 이 atrium 공간에 1층부터 3층까지 직접 연결되는 내부계단은 지하 선로가든과 풍부한 내부공간의 연출 장소가 되고 있는 듯 하다. 기능적으로는 일반 사무소 건물과 다를 바 없으나 사옥이라는 점 때문에 이러한 강한 이미지가 구현됐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던 지하 오픈 공간의 처리가 미흡한 점으로 평가되었다.

• 충청대학 아트 홀 : 충청대학 캠퍼스의 진입광장에 면해 있으며, 지하에 중규모의 공연장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실제로는 이름과는 다르게 주로 교무행정과 교수실로 구성된 대학 건물이다. 환경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대학 캠퍼스에 새로운 질서와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다. 특히 건축주의 요구에 의해 별다른 상징시설이 없고 캠퍼스의 정문 역할도 할 수 있는 매우 인지성이 강한 상징적인 건물로 해달라는 의뢰에 따라 약간 작위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축을 약간 틀어

건물 전면에 투명한 유리 박스를 교수동인 솔리드한 매스에 삽입시켜 강한 상징성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 건물이지만 형태에 있어서 매스와 지붕을 약간 띄어 하늘과 연계된 또 다른 입면을 구사한점이라든지 캠퍼스 밖에서 보이는 매우 정리된 연구소를 연상시키는 파사드와 건물전체의 시공성도 돋보인다. 공간적으로는 중복도형의 교수연구실이기 때문에 단조로운 동선을 깨기 위해 일부 면을 절삭하여 외부공간을 내부로 끌어 들인다든지 중간에 테라스를 활용한 옥외 휴게공간을 배치한 점은 단조로움의 깨고자 했던 건축사의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 서울대학교 이공계 멀티미디어 강의동 : 서울대학교 캠퍼스의 중심 역할을 하는 도서관과 공과대학 사이에 6m 고저차가 있는 중간 위치에 건립된 이 건물은 프로그램 상 강의시설의 제공 외에 다른 공과대학의 건물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되었던 건물이다. 따라서 1층부터 4층까지 각 층 모두 건물들의 연결통로로서 입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물로 평가된다.

다양한 크기의 강의실의 배치를 위해 단면상의 입체적 겹침으로 건물 높이를 최소화하면서 최대한의 공간을 활용한 방법은 매우 높이 평가되었다. 파사드에서는 시멘트 패널, 아연판, 마천석의 솔리드한 면과 투명 유리의 이중의 효과를 통하여 다양한 질감의 효과와 질감의 표정으로 주변의 균질적인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 SBS 신사옥 : 목동에 세워진 이 사옥은 건물 외관에서부터 설비에 이르기까지 하이테크놀로

지가 적용된 건물이다. 외부 형태는 투명한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방송국의 공정성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으며, 내부 역시 유리와 금속재를 주로 사용하여 전반적인 느낌이 명쾌하고 밝은 인상을 주고 있다. 특히 전 층 모두 오픈 되어 있는 중정은, 채광은 물론 4면의 모든 실의 활동을 볼 수 있어 매우 활동적인 방송국의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치밀한 디테일과 우수한 시공으로 형태 구현에 있어서 매우 성공적인 건물로 평가되나 시공 상의 실수이든, 공기의 문제이든 일부 디테일에 있어서 결함이 보인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한 건물이 아니기도 하지만 방송국의 기능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면, 전체 건물을 평가하기에 어려움도 있었다.

• 포항공대 청암 학술정보관 : 포항공대의 장기 캠퍼스 확장계획의 중심 건물로 신축된 학술정보관은 그 규모와 배치가 현 상황으로는 어색하나 마스터플랜 상에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건물위치와 더불어 정보통신 Hub의 역할과 건물의 이미지는 그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용자의 편의와 청암관의 상징성을 함께 고려한 작업이다. 원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과 가구배치는 조용한 개인 작업공간과 공공의 열린 공간의 균형을 이루었고, 학생들의 팀 작업이 가능한 실들의 배치 등 섬세한 고려가 보였다. 보완과 설비의 이유로 개폐되는 창의 부재가 아쉬웠지만 포항공대의 이미지를 정리할 수 있는 유리와 과감한 철 부재의 디테일이 돋보였다.

• 순천 어린이 도서관 :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상가건물의 연속인 거리에 순천 어린이 도서관은 특이한 입면과 매스로 주변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계획부분 금상	계획부분 은상	계획부분 동상
		
Plankton House	도심속의 외부공간	관악구클린센터 + 자연순환테마전시관

사용자 분들의 힘으로 지어진 건물이라는 점을 보여주듯 어린이와 부모님들은 건물을 책과 함께 하는 열기로 가득 채웠다. 전래와 규율을 기반으로 하는 공간에서 탈피한 공간작업이었으나 많은 공간 유형과 표현은 조금 더 건물이 커서 소화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주었다.

• 국립 남도 국악원 : 야심 찬 프로그램과 규모를 잘 소화한 결과물이다. 건물의 배치는 진도의 바다전경과 경사지의 특성을 잘 반영하였고, 건물의 웅장함을 전달하면서도 섬세한 조경설계로 황량할 수 있는 건물사이공간을 잘 연결하였다. 아간조명도 이러한 목적을 잘 도와주었다. 그러나 우리 소리를 담는 대공연장이 새로 해석되지 않고, 전래의 서양음악당 구성을 가지고 있는 점이 가장 아쉬웠다.

• 인사동 덕원갤러리 : 인사동이라는 논쟁상의 대지에서 기존의 건물을 리노베이션을 하는 힘든 프로젝트였다. 건물의 프로그램 상 관람객을 5층까지 지루하지 않게 올라올 수 있는 동선과 내, 외부 공간의 엮임이 잘 해석되었다. 그러나 규모에 비하여 다양한 재료의 쓰임과 공간 나눔이 다소 부담스러워 보였다.

• 조린현 : 작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대의 모든 조건이 다르게 만들어진, 설계의 즐거움이 그대로 보여지는 작업이다. 특정 건축주의 이해로 이루어진 과감한 재료의 응용과 공간 구성은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어졌다. 다소 요소가 많게 다가서지만 주택공간의 다양한 표현이 연구된 작업이다.

계획건축물부문 2004한국건축문화대상

행사일정

- 작품공모공고 : 6. 1~8.31
- 접수 : 2004. 10. 11
- 심사 : 10. 13(1차 패널리스트)
11. 1(2차 모형심사)
- 시상식 : 11. 24.
장소 : 세종문화회관 컨벤션홀
- 수상작전시 : 11. 24~11. 30
장소 :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신관 전시실

주요 공모요강

가. 응모 작품 및 자격

- 응모작품 : 제시된 주제를 적용한 미발표 창작 작품
- 작품주제 : “불이(不二) - Architecture in Nature · Nature in Architecture”
- 주제설명 :
 - 각 지방 도시들의 지역에 적합한 구체적인 장소를 선정
 - 도시, 건축, 구조, 조경, 실내외 환경디자인 등 제 분야에서 계획

건축은 장소의 한정성과 물질적 기능의 확대욕구로 인해 더 높게 더 넓게 만들어짐과 동시에, 고도의 과학기술과 하이테크의 결합으로 건물은 쾌적한 인공환경을 갖추어 지능화, 자족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건축의 욕망은 도시와 자연과의 공존에서 벗어나, 오히려 도시에 위압적이

면서, 자연에너지의 고갈과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거대화, 인공화의 진행은 도시 내 거주자들의 인간성 상실과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 지적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에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앞으로의 삶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건축은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우리의 사고와 건축계획은 자연과 인간에 대한 균형을 회복하기 위하여, 자연과의 공생과 상생을 담은 자연공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노력으로 건축은 자연과의 관계성을 확립하여 자연과 통합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의 건축디자인은 자연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유기적 전체에 통합되는 인공 환경구축을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다.

건축과 자연과의 관계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상보적 관계로 얽혀있다. 서양적 이성, 근대서양의 유산인 과학적 지식이나 기술의 부정과 포기가 아니라 동양적, 생태적 세계관에서 통합으로 이제 우리는 최상위의 척도를 인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과의 공존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문화, 사회, 기술에 대해 가치매김을 하기 위한 척도가 바로 인간과 자연 공존의 가치 체계로 최우선적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자연 환경적 건축이라 해서 단순히 녹지가 잘 조성되고 자연을 복원시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도시와 건축에 자연 공기의 흐름이 있도록 하고 외기와 접하도록 하고, 살아있는 생물체를 도시건축 속으로 끌어들이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물과 바람의 흐름과 공기의 이동을 이해하고, 빛의 원리를 이해하고,

계획부분 | 입선



레벨과 휠을 통한 청소년문화시설



Re-Garden



용산 삼각지주변 화랑가 문화거리 만들기



경사지레벨을 통한 도심속 오픈스페이스 재구축

재료의 속성을 깨우치고, 보다 큰 자연의 순환 논리를 감지해야 할 것이다.

퇴보 (Retrogression)	진화 (Evolution)
←	→
단순성	복잡성
획일성	다양성
불안정성	안정성(안정상태)
종의수:소수	종의수:소수
높은 엔트로피	낮은 엔트로피
독립성	상호의존성(공생)

자연에 대한 인간의 부채 / 이안L, 맥하그

지속가능한 미래의 도시건축상은 자연과 건축을 하나의 유기적인 체계로 파악하고 자연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 복잡성, 안정성, 상호의존성(공생)에 가깝도록 계획하고 설계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균형을 회복하고, 건축은 인간과 자연과의 화해를 위하여 그 몫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 단서들 : 땅, 물, 바람, 빛, 수목, 경사지

- 출품자격 :
- 일선 건축분야 설계업무 종사자(건축사자격 소지자 제외)
 - 대학(교) 및 건축관련학과 재학생
 - 일반국민

나. 주요 출품규정

- 1차 : 패널(가로 90cm×세로120cm), 패널 축소한 A3용지 1매, 작품설명서(A4용지 1매 분량)

- 2차 : 모형(가로×세로 규격이 75cm×90cm 또는 90cm×세로75cm, 높이 75cm 이내)

※ 1차 패널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해 2차 모형을 제출함. 모형 제출일은 개별통보

- 출품인원 : 공동작품은 출품인원을 3인 이내로 제한함

심사

가. 심사방법

- 패널 및 모형 심사

나. 심사위원

장양순 / 건축사사무소 동명건축(심사위원장)

박영순 / 건축사사무소 상화

손기찬 / 건축사사무소 동이

오성훈 / (주)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

이관직 / 비온드스페이스 종합건축사사무소

시상내용

- 금상(1점):상금 300만원 및 건설교통부장관상

- 은상(2점):상금 200만원 및 대한건축사협회장상

- 동상(3점):상금 100만원 및 대한건축사협회장상

- 입선(다수):상금 20만원 및 대한건축사협회장상

※ 동상 이상 수상자중 대학재학생에 한해 영예 인터뷰심사를 거쳐 2인을 선발, ARCASIA 학생잼버리대회 파견 특전

수상자 명단

■ 금상

• Plankton House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대학원 건축의장연구실 박종대, 윤새봄, 김정희

■ 은 상

• 도심속의 외부공간 / (주)건축사사무소 우진 박준용

• Artificial forest under the urban highway /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김성원, 이지훈, 임정수

■ 동 상

• 관악구클린센터+자연순환테마전시관 / (주)건축이상 건축사사무소 황규하, 청구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석재영

• 레벨과 월을 통한 청소년문화시설 /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김인선

• Re-Garden /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 건축의장연구실 최해안, 인하대학교 건축과 서윤원, 이신재

■ 입 선

• 용산 삼각지주변 화랑가 문화거리 만들기 / 수원대학교 건축공학과 이성래, 대림대학 건축과 송형태, 김희연

• 경사지레벨을 통한 도심속 오픈스페이스 재구축 /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원영권

• 난지도 에코-라인 / 호서대학교 건축학과 김의섭, 고석홍

• 경계의 불명확성 / 한양대학교 건축대학원 신민재



난지도 에코-라인



경계의 불명확성



지기의 흐름을 이용한 청라 노을공원



생태체계를 도입한 재래시장 리모델링

- 지기의 흐름을 이용한 청라 노을공원 /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 건축환경디자인연구실 류금영, 유용배, 이창엽
- 생태체계를 도입한 재래시장 리모델링 / 부경대학교 건축학부 최수미
- 기능의 전환을 통한 생태 공간의 확산 / 부경대학교 건축학부 유규진, 오장훈, 최낙훈
- 온라인 집회시설 /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김우재, 박재우, 서강석
- 자연스런 흐름 /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김병규, 김성민
- 연속된 산책 공간을 통한 낙동강변 활성화 방안 /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박종규, 정해웅, 강민호
- Where is the Boundary? / 인하대학교 건축과 정우석
- 용머리 해안, 하멜 기념관 /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강현석
- 자갈치 시장 재구축 / 동서대학교 건축설계학과 정재우, 김미애, 동서대학교 건축공학대학원 김정은
- Nature Connection Person Flowing /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박근형, 서현옥,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 박성호
- 남산 경사도에 따른 수직공원 /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대학원 건축의장연구실 심경아, 이주석, 인하대학교 건축학부 이종훈
- 무하유지향과 실 한 오라기 / 동양공업전문대학 건축과 박종세, 장현창
- Recovery of the Urban Life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이용원, 김대연
- Urban Landspace Image /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이종훈, 손형주,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김민하

- 3+4=Nature /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이준석, 박종원, 장수현
- Multi-Ground in the City /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김진국, 김원기, 소재민
- Equation of the Higher Degree /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김해진, 김진국, 신동하
- Hybrid Station /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조상현, 지동현, 김진국

심사평

장양순 / 건축사사무소 동명건축, 심사위원장
 금년은 예년과 달리 1차에서는 패널과 패널을 축소한 A3도판을 제출케 하고, 예심에서 통과한 작품에 한하여 모형을 제출케 하였다. 이는 참가자들의 수고를 덜게 하고, 참여 작품의 숫자를 늘리게 하기 위함이었는 바, 기대와 달리 작품 숫자의 증가는 없었다.

심사는 1차로 28개 작품을 선정하고, 2차에서 이를 바탕으로 수상작을 선정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예심에서는 언제나 그렇듯이 주제와 동떨어진 작품이 다소 있었으나 전반적인 작품의 질은 작년보다 좋아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소화하기에 버거운 큰 스케일의 작품수가 줄어든 것은 바람직한 일로서 앞으로 참여자들의 기준이 되리라 본다.

금상으로 선정된 「플랑크톤 하우스」는 심사위원의 전원일치를 가져올 정도로 주제와 맞는 작품이었다. 플랑크톤의 증식과 변이의 시스템을 형태구성에 반영한 점이라든지, 평면이나 입면의 해법은 물론 표현 기법 또한 뛰어났으며 스케일도 적절하였다. 굳이 흠을 잡자면 갯벌에 그대로 앉아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될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었다.

은상의 경우 「도심속의 외부 공간」은 기성 건축사들이 건축주라는 벽에 막혀 풀지 못하는 부분을 시원하게 풀어준 작품으로, 직육면체의 틀 속에서 공간을 비우고 채우며 빠고 더하는 기법이 짜임새 있게 계획되었다. 「Artificial forest...」는 탄천을 지나는 도시고가로 하부 공간을 이용하여 건축적 공간을 디자인한 것으로 기능적인 기동에 의한 건축적인 숲과 자연 숲을 조화시키는 아이디어 측면이 뛰어나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차분하여 영예를 안게 되었다.

동상을 수상한 「Re-garden」의 경우 그와 유사한 작품들이 있었는 바 그 중에서 가장 성실하고 작품성이 있는 것을 선택하였으며, 「레벨 월을 통한 청소년 문화시설」은 고식적이고 경직된 부분도 있으나 위치의 선정과 경사지 등 자연을 가장 당위성 있게 풀어나간 능력을 높이 샀다. 「관악구 클린센터...」는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에 착안한 점이 발군이었다. 전반적인 디자인도 무난했으나 건물의 비중이 대지가 수용하기에 너무 짝 찬 느낌이다. 좀 더 걸러내고 속아 내어 보라매공원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하멜 기념관」이나 「온라인 집회 공간」, 「청라 노을공원」 등도 입선작으로는 뛰어난 작품이었음을 밝혀둔다.

금년도 수상작 가운데 대학원생 및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참여자들이 많은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한국건축문화대상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기도 반가운 일이다. 입상자들을 축하하며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계속 정진하여 이 나라 건축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주기를 기대한다.



기능의 전환을 통한 생태 공간의 확산



온라인 집회시설



자연스런 흐름



연속된 산책 공간을 통한 낙동강변 활성화 방안

박영순 / 건축사사무소 상화

대부분의 출품작이 그 장소의 독특한 특성과 사회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대지를 잘 선정했다는 점이 돋보였다. 특히 사회적 이슈를 재해석해서 건축적으로 풀어내려는 작품들도 눈길을 끌었는데, 예를 들면 1차 심사에서 「탈북자 지원센터」,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도립천 수변공간」, 「부산 외국인 노동자의 집」, 「미혼모 요양원」, 「실미도 기념공원」, 「은퇴노인 공동주거시설」 등의 작품은 주제와 좀 더 접근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전반적으로 1차 패널 심사는 주제와 접근된 내용 위주로 여러 차례 토론 끝에 총 252작품 중에서 28작품이 선정되었다. 2차 심사는 1차 심사 때 충분히 읽혀진 28개의 패널 도면을 기준으로 모형심사로 이루어졌고, 다소 미약했던 패널 작품도 모형으로 다시 검토하면서 토론을 거쳤다.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을 가진 「옹머리 해안, 하멜기념관」은 주제에 적합하면서도 의미 있는 장소선정과 계획적 표현도 월등했지만 지나치게 국한된 대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웠던 작품이다. 「Artificial forest under the urban highway」는 소음이나 진동 등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제시가 아쉽기는 했지만 도시 고속도로의 버려진 하부공간을 재해석해서 충분한 건축적 가능성을 제시해준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Outside space in Architecture」는 도시의 무수한 직육면체 공간에 대한 문제점을 주제로 끌어들이는 아이디어가 신선했고, 다양한 외부공간의 작은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도시환경의 활력과 상가건축의 가능성을 제시한 점이 훌륭했다.

를했다.

금상을 수상하게 된 「Plankton House」는 갯벌의 수위변화에 따른 건축과 생태계의 공존을 제시해서 1차 심사 때 많은 관심을 갖게 했다. 의외로 단순한 계획안이었는데, 모형에서도 그 계획안이 충분히 반영되었다. 바로 그 부분이 계획하고자했던 초기의 의도를 끝까지 잘 소화해낸 작품으로 선정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심사를 마치면서 아쉬웠던 점 몇 가지만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참가예정자에게 주제가 좀 더 일찍 제시된다면 실무하시는 분이나 학생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 둘째, 1차 작품을 간소하게 받아서 참신한 아이디어의 작품을 선정하고, 더 발전된 2차 심사로 연결된다면 좋은 작품이 더 많이 참가하게 될 것 같다. 셋째, 차세대 건축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특화된 보상이 주어진다면 교육계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이번 행사에서 수상하게 된 모든 분들과 참가자 전원에게 수고의 박수를 보낸다.

손기찬 / 건축사사무소 동이

올해에는 소모적인 관성에서 벗어나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심사를 했지만, 건축교육적 관점에서 보면 1차에서 이미 패널을 제출했기 때문에 계획안의 발전이 없이 모형만을 제출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다음에는 1차를 계획안을 보는데 그치고, 2차에서 더욱 발전시켜 밀도가 높은 패널과 모형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직하다.

1차에서 이미 입선작에 가까운 작품들이 걸리진

터라, 어렵지 않게 입상권의 작품들을 선정할 수 있었지만 몇 가지 아쉬운 부분들을 정리해 본다. 동상의 「레벨과 월을 통한 청소년 문화시설」은 경사지를 이용한 문화공간으로서 비교적 원만한 건축적 기법에 의한 해결이지만, 오히려 학생으로서의 창의성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동상 「관악구 클린센터+자연순환테마전시관」은 훌륭한 주제임은 사실이지만 부지의 건축적 조형성에 치우쳐, 그러다 보니 공원과 연계해서 여유 공간이 없고 도로와 공원과 여유 공간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동상의 「Re-Garden」은 뛰어난 조형성과 완성도에도 불구하고 부둣가부지가 지니는 특성과 그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의 전개가 아쉽다.

이외에 입상에서 밀려났지만 「경계의 불명확성」은 일상을 추적하고 도시근교의 전원주택을 비교적 심도 있게 다루어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지만, 전원이라는 마을과의 관계에서 주제가 시사하는 모호함에 대한 해석의 소홀함과 「자기의 흐름을 이용한 청라공원」 또한 땅의 흐름을 분석하여 지기를 읽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독특한 프로세스를 보여주었지만 건축적인 외피를 구성하는데 그치는 아쉬움을 보여주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집회시설」은 온라인 네트워크로서 현실을 뛰어넘는 집회시설을 계획하는 훌륭한 주제와 설정은 좋았지만, 부지가 지니는 역사성 등 강한 주변과의 맥락에 대한 의식과 「옹머리 해안, 하멜기념관」 또한 장소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대상 부지의 주변 특성과 땅에 대한 해석함이 부족하여 입상의 대상에서 고심하게 한 작품이었다.

은상인 「도심 속의 외부 공간」은 직육면체의 가



Where is the Boundary?



옹머리 해안, 하멜 기념관



자갈치 시장 재구축



Nature Connection Person Flowing

장 보편적인 공간의 틀 속에서 외부공간과의 관계에 의해 형태를 구성해 나가는 쉬운 주제인 듯하지만, 비교적 작업방법은 다른 작품과는 차별화되어 오히려 흠 없이 은상에까지 이른 데에는 별 이의가 없었던 것 같다. 또 다른 은상 「Artificial forest under the urban highway」는 기존고가도로 하부공간을 재해석하여 재생산한다는 좋은 주제와 밀도 있는 공간 처리임에도 탄천이라는 수공간과의 관계와 어프로치문제에 있어 아쉬움이 있었다.

금상인 「Plankton House」는 조수간만의 차이와 갯벌의 경사를 통해 만들어지는 자연의 변화를 건축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섬세한 작업은 생태계의 시스템과 건축의 시스템과의 관계에서 주목할 수 있는 주제이고, 그 표현된 결과 또한 만족할 만하여 금상으로 결정되는데 무난하였다.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작품 거의가 주제에 대한 철저한 사고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애석했다. 즉 충분한 사고 작업을 했지만 그것이 건축적인 것으로 표현되지 못했다고 보인다. 적당한 부지(대체적으로 경계지점)를 선정하는데 그치는 아쉬움이 있었다. 대지의 형식은 직관적으로 파악되지만, 땅의 해석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주변적 반응능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말하자면 하나의 건축언어를 뒷받침하는 주변적 해석 없이 그 가시적 형식만 수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의 빈곤은 미적 풍성함으로 보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불이(不二)라는 주제가 시사하는 것처럼 땅이란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란 개념이상으로 자연을 포괄하는 뜻일 것이다. 땅이란 재생

산될 수 없고, 자연재생에는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마인드가 긴요하다. 모든 건축사들이 그들의 가치를 새로이 구축하려면 땅에 대한 겸손을 그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오섬훈 / (주)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

전체적으로 주제해석, 대지선정 및 읽기, 아이디어 전개과정, 완성도의 4가지범위에서 전체 제출된 패널들을 봤다. 먼저 주제-不二(둘이 아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해서 풀었다는 느낌보다는 나름대로 설정한 주제 내지는 상황을 전제로 많이 풀어나간 듯 보였다. 제출된 상황들이 학교교제와 겹쳐서 더 그러한 느낌이 많이 들었다.

건축과 자연과의 관계라는 좀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방향체시가 주어졌으면 그 관계 내지는 자연에 대한 해석을 좀더 치열하게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주제해석과 연관지어 대지선정에 있어서 하천가, 바닷가 등이 꽤 있었는데, 주제해석에 있어서 1차적이고 표피적인 단계를 넘어나지를 못한 것 같았다. 또 도심지에 설정된 대지들도 주변의 콘텍스트에 대한 기억과 흔적을 어떻게 읽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들의 반영이 약했던 것 같다.

아이디어 전개과정에 있어서는 대체로 프로세스를 밟으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읽히기는 했으나 추상적인 아이디어에서 물리적이고 시각적인 수단 등으로 치밀하게 이행한 것은 적었던 것 같다. 이러한 논리적인 과정이 취약하다 보니 결과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현상이 생긴다. 즉 많이 보아온 건축적 언어들로 취약한 아이디어가 대체되고, 현란한 그래픽으로 과정이

호도되는 현상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끼리 작품하나씩 리뷰한 결과 입상권에 들어가는 30여 작품을 골라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일차 심사를 마친 후에 몇몇 작품들이 기억에 남아있었다. 모형이 추가되고, 혹은 보완될지도 모를 작품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패널들의 보완은 없었고 모형의 추가만 있어서 위원들끼리 아쉬움을 나타냈다. 몇몇 개의 작품은 모형으로써 아이디어설명을 충분히 보완해주고 전개 과정을 읽을 수 있어서 기분이 괜찮았다.

주제의 포착과 전개과정, 주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금, 은, 동상을 선택했는데, 크게 이룬 이 없었고, 소위 메달권에서 벗어난 것들 중 아쉬운 것들이 세 작품이 있었는데, 「온라인집회 시설」, 「하멜기념관」, 「청라노을공원」 등이 그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주변과 관련된 고려가 없거나 미약했다.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나 결과의 솜씨는 동 메달권의 것들과 큰 차이가 없었을 정도였다.

금상을 받은 「플랑크톤 하우스」는 프로젝트 크기 문제를 넘어서 주제해석이나 시간에 따른 공간적 변화를 잘 드러내서 1위를 차지하는데 이견이 없었다. 특히 모형으로도 변화의 개념이 잘 드러나도록 제작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좀 아쉬움이 남는다면 전체적인 설정이나 개념이 건축적 처리에 까지 깊이 들어 왔으면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있다. 특히 육지 쪽 건축과 바다 쪽 건축은 좀 다른 제스처를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물에 잠기기도 하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은상을 받은 「Artificial forest.....」에 눈이



남산 경사도에 따른 수직공원



무취유지환경과 실 한 오라기



Recovery of the Urban Life



Urban Landscape Image

많이 갔던 거 같다. 이 「Artificial forest...」도 대지의 선택과 건축적 해결에 좋은 솜씨를 보여줬다. 아티피셜 포리스트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해결책의 제안과 전개에 있어서 흔히 보는 듯한 해법으로 처리된 게 아쉬웠다, 깔끔하고 스마트하긴 해도 학생이나 신인들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함이 부족했어서 아쉬웠다. 「도심속의 외부 공간」은 설명서에서 작은 도시 복합체로서 경험되기를 기대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런 의도라면 외부공간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건축적 언어로써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제안한 공간조직도 다양하고 풍부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제 해석과 그 전개과정, 건축적 완성도가 골고루 갖추어진 작품들이 인상했고 결국 메달권에 올라간다고 생각된다. 또 주제 선정 시에는 대상이 도시든지 자연이든지 자기 나름의 시각과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사물을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관직 / 비온드스페이스 종합건축사사무소

올해의 주제는 자연과 인공의 건축이 다르지 않음 불이(不二)이다. 평가한다는 것은 작업하는 것과는 다른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 각각의 다른 프로그램, 다른 대지에 각자의 해석 능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들을 우열로 평가하여 순서를 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입상권에 든 작품들 중에 금상, 은상, 동상을 구분하는 것은 심사위원 간에 비교적 의견이 쉽게 접근되었다. 다만 상위 6개의 작품을 고르면서 그 안에 들지 못한 몇 개의 작품은 인상적이었고 조금은 아쉬운 것들이 있었다.

상위 입상권에 들지 못했지만 기억에 남는 아

쉬운 작품 중에 「제주도 용머리해안 하멜기념관」 계획안이나 「Hyper-Green-Arena」 등의 작품은 진지하면서도 재미있는 주제의식과 형태와 도형을 풀어나가는 능력은 비교적 좋은 평가였지만 대지주변(자연 혹은 도시)과 관계를 해석하는 점이 부족했다.

상위 입상의 작품 중에 「Plankton House」는 단순하고 소규모의 작품이지만 주제의식이 강렬하고 섬세한 해석이 돋보이는 작품이었다. 그림과 다이어그램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능력과 모형의 표현력도 좋았다.

「Outside Space in Architecture」와 「Artificial Forest」는 두 작품 모두 도시를 재구성하는 작품이다. 「Outside Space in Architecture」는 우리말 제목이 외부공간을 통한 도시의 상가건축 되돌아보기이다. 건축이 당대의 사회적 요구 프로그램을 건축사의 도시와 형태해석을 통하여 표현하는 것이라면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하여 볼륨이 커지고, 두꺼워지는 건물의 채광, 환기, 전망 등의 건축적인 조건이 열악해지는 도시 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 작품은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서 현실적이면서 구체적인 연구가 돋보인다.

도시를 지나는 고가도로의 하부 일부 구간을 건축적으로 이용하는 「Artificial Forest」는 교통에 해결을 위한 거대한 토목구조물이 혼재된 도시에 있어서 그러한 토목 구조물에 의해서 버려두고 황폐해지기 쉬운 공간을 발견하고 건축적으로 재조직하려는 노력의 작품이다. 현실성과 구체성은 「Outside Space in Architecture」와 비교해서는 떨어지지만 다양한 레벨을 해결하고 건축 조형적인 감각과 구성이 좋아 보인

다. 조금 더 다양한 기하학의 구성으로 접근했다면 공간적으로 다양함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인천의 해안 지역을 건축적으로 재구성하는 「RE Garden」은 공간, 구조, 형태를 기하학적 선형으로 다루는 솜씨가 돋보인다. 회화적인 감각과 건축공간이 조화되어 있다.

「Disappearing of Wall and Road」는 학교가 밀집된 경사지에 계단형 청소년 문화 시설을 계획한다. 직교의 구성과 레벨을 이용한 공간 활용이 감각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 지형에 그대로 지을 수 있을 것 같은 구체적인 노력을 평가하고 싶다.

「Animated Urban-Park」는 최근에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 쓰레기 처리 시설을 공지형을 이용한 공원 문화 시설과 복합적으로 처리한 작업인데, 강안 둔치의 경사를 이용한 흥미로운 작품이었다. 다양한 각도의 선들을 겹치고 복잡한 기하학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통해서 구체적인 공간을 만드는 노력을 보여준다.

250여 전체 작품들 속에는 주제와 거리가 있고 미숙한 것들이 더러 보였지만 대부분 많은 작품들은 연구와 표현에 있어서 노력이 많은 노력들이 보여서 반가웠다. 앞으로도 좋은 작업을 통하여 건축문화에 이바지할 건축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



3+4=Nature



Multi-Ground in the City



Equation of the Higher Degree



Hybrid Station